

세속 선거방법 무작정 따르니 폐해... 종교 본질 지켜야



정천구
영산대 교수

오늘날 종교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민주화가 진행돼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불교에서는 이번 달 22일 조계종 33대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를 한다. 장로교를 비롯한 기독교 개신교 교단들의 총회장 등 임원을 뽑는 총회는 9월 마무리됐다.

종교는 대학과 군대와 같이 이념과 교육과 서열을 중시한다. 선거를 하고 민주주의를 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근대와 눈자들은 근대화가 진행되면 종교의 세는 몰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부활하고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면 선거와 민주화는 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종교의 본질을 지키면서 선거를 바르게 정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다른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와 우리 불교에서 이뤄지는 선거 현황을 점검해 가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해 보겠다.

#다른 종교의 선거제도와 문화

개신교와 가톨릭 등 기독교에 선거와 민주주의의 바람이 분 것은 오래됐다. 기독교에서는 선거의 기독교적 기원을 <성경>의 '사도행전' 기록에서 찾고 있다. 빈자리를 채울 사도를 뽑는데 제비를 뽑아 선택했다는 구절인데 이를 제비뽑기 선출방법에 원용하기도 하고 '제비뽑다'라는 회람어의 의미가 표를 주었다(give votes)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개신교는 칼빈이 창시한 장로교와 웨슬리가 창시한 감리교로 대별될 수 있으나 수많은 분파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쇠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번창하는 교파가 장로교다. 창시자 칼빈은 공화주의자로서 임기제로 선출되는 장로와 목사 등으로 구성되는 당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장로의 선출은 이러한 예에 따르고 있으나 도입초기 신도가 적은 사정을 감안해 장로의 임기를 종신제로 해왔다. 장로교 각 교단의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된다.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들은 각 교회의 목사, 장로로 이루어지는 노회 회원들로서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선출방식은 교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는 2001년 그 동안 직선제의 폐해를 감안해 제비뽑기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금년에 직선제로 복귀하려는 안이 제출됐으나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돼 제비뽑기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선출되는 직책에 합당한 조건들을 세우



10월 7일 열린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직할교구 총회'에서 선거인단으로 뽑힌 스님들이 사부대중에게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인사를 올리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고 그 조건에 맞는 이들이 제비뽑아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직선제를 제비뽑기로 바꾸고 오늘날까지 유지하는 것은 그 동안에 이루어진 기독교의 선거문화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직선제는 금권선거와 지역감정을 비롯한 연구주의 등의 폐해가 컸기 때문이다. 어느 교단의 목사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교단선거에서 올바른 방법대로 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세상을 정화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장로교는 장로의 종신제를 세계적 추세인 임기제로 바꾸는 문제,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조화시켜 발전적인 선거제도를 만드는 문제 등을 과제로 안고 있다.

가톨릭은 1962-1965년 소집된 바티칸 제2공회에서 사회변화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판단 책임 등을 결정함으로써 가톨릭이 반민주적이라는 통념을 바꾸고 현대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세를 확장해 나갔다.

가톨릭의 조직은 피라미드 계층구조로 유명하다. 교황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가톨릭의 수장이며 무오류성이 있다. 교황은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이 외부로부터 격리된 시스타나 성당에 모여 3분의 2의 표를 얻을 때까지 반복해 투표하는 '콘클라베'라고 하는 선거로 선출된다. 주교와 사제 그리고 부제의 3개 계층으로 이루어진 교단의 최고지위는 교황에 의해 임명된다. 추기경은 교구 성직자나 세계의 중요한 교구의 주교 중에서 교황이 임명한다. 가톨릭의 사제는 남성으로서 신학교에서 사제 서품을 위해 일정기간 교육 받은 신학생들이 시종직, 독서직 및 부제를 거쳐 주교에게 성품서사를 받아서 임명된다. 그러나 가톨릭 성직자는 대중선거에 의하지 않고 강도 높은 교육과 자격심사를 통해 임명된다.

기독교 선거 기원은 성경 '사도행전'에서 찾아 불교 선거문화 공화주의 전통으로 회귀해야

한편 가톨릭의 평신도화는 선거에 의해 조직되며 1968년 전국평신도로 구성된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생겨 '내 뜻이오 운중'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등의 캠페인을 벌여 기독교 정신을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결국 가톨릭은 근대화와 민주화의 압력을 직선제 등의 세속주의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대신 교육 강화, 평신도화 활성화 그리고 재정 투명화 등의 방법으로 적응했다. 결과적으로 교세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개신교는 직선제를 도입해 초기에는 신도 동원 효과 등을 보았으나 금권선거, 위계질서 약화, 교육부실 등의 부작용을 낳아 개신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가져왔고 신도 숫자 감소 등의 역작용을 가져왔던 것이다.

#불교계의 선거제도와 문화

불교는 공화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승가의 운영도 공화주의의 방법으로 운영돼 왔다. 불교에서 승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위의 회의인 대중공사는 만장일치로 결정되며 여기서 결정된 일은 구상된 모두가 지켜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산중공사는 산중의 암자 등에 살고 있는 모든 대중까지 참석하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종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대규모의 공사이다.

현대에 도입된 불교계 선거는 크게 교구본사 주지 선거와 총무원장 선거 그리고 총무원장선거로 나눌

수 있다. 조계종에서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에서 추대하면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교구본사 선거권을 가진 본사스님들이 산중총회에서 경선을 원칙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선거는 금품선거 등 각종 선거 비리 의혹으로 얼룩져 왔고 급기야 2007년 10월 16일 MBC PD 수첩에서 조계종의 비리와 주지선인 과정에서 나타난 금권선거가 심도 있게 방영되기도 했다. 왜곡된 종교 편향적 보도라고 보지만 주지 선거제도가 낡은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각 교구에서 선거로 뽑은 선거인단이 선출해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종정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선거인단은 중앙총회 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 본사 총회에서 각 본사마다 10인씩 선출해 총 321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총회 의원은 23개 교구에서 각 2명씩, 해인사에서 3명, 그리고 직할교구 4명, 총 81명으로 구성된다.

태고종은 사설 사단 중심의 조직으로서 주지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스승에게서 제자를 물려받는 사자상승(師資相承)으로서 장건주의 의사를 존중해 임명된다. 총무원장은 총회의원(정수 49명)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태고종에서도 주지 임명에 따르는 금품 수수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급년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총회의원 추천 요건을 가지고 한 때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그 동안 불교계에서 나타난 선거문화는 여비 문화와 속식 제공과 금품 수수 및 이해관계로 얽힌 선거 관행 등은 세속선거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전통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현 불교계 선거제도 문제점 및 개선점

이러한 조계종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그것이 불교의 철학과 전통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세속의 선거 방법을 그대로 따른 결과라고 본다. 승가와 재가불자를 막론하고 현행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정리해서 통합하며 지도자를 추천해 주고 당선된 지도자에게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해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종단의 선거는 통합보다는 분열을 부추겼고 그렇게 선출된 지도자의 권위와 정통성도 제대로 부여하지 못했다. 선거가 세속의 금권, 타락 파벌정치를 모방하기 때문이며 준법정신과 건전한 시민정신,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수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월남전 반대의 열기와 함께 대학에 민주화 바람이 불 때, 하버드 대학의 한명헌 교수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은 '불안정한 민주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민주주의의 확대에 바람직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때 보스턴 대학의 존 실버 총장은 공개적으로 '대학은 민주적이어서는 안 된다. 대학이 민주적이 될수록 질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았지만 학생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보스턴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대학의 질을 높였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바람으로 대학총장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미국에서 대학총장은 직선이 아니라 선출위원회를 구성해 뽑는다.

대학이 일반사회와 다른 것처럼 종교는 철학과 운영방식이 세속과 달라야 한다. 개신교는 직선제 등 세속의 민주화를 따라했지만 역풍을 맞았다. 그러나 가톨릭은 교육과 선출제도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평신도의 역할을 늘리고 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것은 가톨릭 교세의 지속적인 확장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필자는 불교의 선거제도와 문화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통을 돌아보고 가톨릭으로부터 교훈을 배울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현행제도에 주지 선출 제도의 폐해를 줄이는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이며 총회의원 선출과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거선출을 별도로 하는 중복과 부작용을 개선하는 동시에 교단운영에서 사부대중의 고른 참여와 재정투명화가 함께 요구된다.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 빙의 · 퇴마 · 최면 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 수련기간 : 2박 3일 ■ 수련인원 : 1~3명 ■ 수련비 : 150만원 ■ 개강일 : 2009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스님이 직접 강의 하고 스님들만 교육 받는 유일한 곳

많은 스님들께서 최면 교육에 비싼 비용과 무리한 시간을 내어 최면을 수련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스님된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딱! 일년만 저렴한 비용과 최소한의 시간으로 스님들이 최면을 완벽하게 시술 할 수 있도록 최면 강좌를 열겠다고 그것이 소승의 의무라고 생각 했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벌써 일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150여분의 스님들이 미흡한 제 강좌를 들으시고 최면을 시술 하시어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소식에는 스님들께 무한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정락 스님이 강의를 너무 쉽고 편하게 가르쳐준 덕분이라는 그말엔 송구 스러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소승은 오히려 150여 스님들께 감사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말을 제 가슴에 새길뿐입니다. 이제 약속의 일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특별 개인 지도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세미나와 수련회에만 열중하여 유마 최면 연구소 정회원님들께 고난이도 테크닉 전수와 각 회원님들이 삼삼의 시공을 넘나드는 자기 최면 완성을 돕는데 진력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대상 최면 교육의 명가

≫ 많이 하는 질문

질문 1) 정말 2박 3일에 최면을 시술할 수 있나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답)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 소승에게 그동안 150여 스님들이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매우 시간을 낼 수 없고, 신분 노출을 꺼리시는 30여 스님들께서 개인적으로 2박 3일 수련을 하셨습니다. 현재 자신있게 최면 시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내에 완벽하게 시술 할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이 저의 교육 노하우 할까요? 비법이라 할까요? 같은말 인가요? 하~ 하~ 하

질문 2) 2박 3일 교육이 끝나면 끝입니까? 제가 등에서 한번 교육에 최면 시술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 걱정 하지 마십시오. 2박 3일 교육을 받으시면 시술을 하지 못할 일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 한다면 언제든지 무료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승에게서 공부하신 스님이 현실에서 최면을 활용하지 못하신다면 제 성질이 그런것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승이 책임져 드립니다.

질문 3) 이론 공부만 부족하지 않은가요? 답) 네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최면 강좌를 시작하기 전 많이 고심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학문과 기능? 학문과 기능이라? 그리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기능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스님들께서 불사와 포교를 하시는데 몇 년의 시간을 할애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 했고요, 자동차를 운전 하는데 자 동차에 대한 깊은 학문이 필요 없듯이 최면 시술을 하는

데도 깊은 학문적 이해는 꼭 필요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여 기능면에 치중 하였습니다. 학문적 욕구가 절실한 스님들이 계시면 서점에 가면 최면에 관한 서적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최면 이라는 검색어만 쳐도 최면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유마 최면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도 많은 자료가 있어 기능이 완벽 하면 학문에 대한 갈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되어 소승은 최면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과 더불어 완벽한 최면 테크닉에 중점을 두고 강좌에 임하고 있습니다.